

주간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300

THE WEEKLY CHŒ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충헌 루디아관 및 엘림관 개관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난 목요일(20일), 충헌기도원은 주님이 주신 은총의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섬을 누릴 수 있는 수양관 및 체육관 준공감사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이후 2008년 10월 준공허가를 받기까지 세밀하게 이끄신 주님의 손길과 교회일꾼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한대로 이곳은 복음을 위한 설, 집회, 체육활동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집회 및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로 사용될 **루디아관**은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기후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선교본부로 제공(행 16:12~15)하여 유럽 선교의 교량이 된 것처럼 루디아관도 이와 같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늑한 섬의 공간인 **엘림관**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설계

된 내부 인테리어와 현대식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엘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후 두 번째로 머물렀던 오아시스였습니다. (출 15:27; 민 33:9) 12개의 생과 70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여행의 피로를 씻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헌기도원이 오직 복음증심으로 운영되었듯이 루디아관과 엘림관도 오직 복음증심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친교와 섬을 위한 공간이 아닌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영적 가나안을 향해 믿음의 출발을 다짐하는 은총의 장소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궁골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루디아관 및 엘림관 이용 안내는 본지 7면 참조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위기를 당하는 자들을

향한 권고 (미가 4:9~5:1)

흔들리지 말고 권고하였다. 물론 위기는 쉽게 지나쳐 버릴만한 것이 아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의 실재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왕이나 모사들은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미 50:17) 유다는 오랫동안 적군들의 손에서 구하여 낸 왕들을 의존했었다. (사 31:1) 그러나 이제 미가는 유다 왕이 실패할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미 4:9)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한다. (사 28:29) 하나님은 우리의 기묘자이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주장하신다. (렘 32:19)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보아야 한다. (시 20:5) 그레아만 흔들리지 않는다. 궁극적인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시 16:5) 미가와 예레미야는 고통의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였다. (미 4:10; 렘 4:31, 6:24) 백성들을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정신을 차려 흔들리지 말고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른 자를 의지하였다가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렘 13:19~21, 49:24)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과 앗수르로 잡혀갈 것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예의 신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 37:36~38) 그러므로 아무리 심한 고난과 고통의 위기가 닥쳐와도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위기보다 크심을 보게 될 것이다

유다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 미가는 원수들이 저들을 조롱할 때를 말하고 있다. (미 4:11) 시온의 백성, 위대한 백성, 위대한 국가로 명성을 가졌던 유대 민족이 아니었던가(사 2:9, 11) 그러나 지금은 이방 나라들이 모여들어 예루살렘의 고난과 수치를 바라볼 것이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불러내었다.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 위기는 우리의 부추함을

바라보게 하며 또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한다. 위기는 우리 자신이 우리 운명의 주관자도 아니며 우리 영혼의 주인도 아님을 쉽게 깨닫고 느끼고 볼 수 있게 한다. 자신을 발견하는 자들은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웃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흡족한 듯이 유다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선지자는 “말 시온에서 일어나서 칠지어다” (미 4:13)라고 외친다. 여호와와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향하여 그의 길이 선포되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로 방향을 돌리실 것이다. 최악의 비극으로부터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개인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위기,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는 해로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로부터 선을 이루실 수가 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없이 나쁜 일들을 체험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다. (고전 2:7~8; 창 50:19~21) 인간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만들어 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 저주받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며 가장 험악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미 4:12)

위기를 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다

인생의 위기는 냉혹함을 동반한다. 때로는 다른 자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다. 인생의 삶이며 진로이며 종점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예루살렘은 적군에 의하여 포위되었고 백성과 지도자들은 수치와 멸시 앞에 고통을 겪고 있다. (미 5:1) 참으로 위기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고 생자를 호리개 만들고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위기를 당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유대 백성은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상은 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시 46:1)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는가? 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도우신다. 인류의 위기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위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셨다. (사 44:2~4) 아멘.

A THANKSGIVING HEART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2Corinthians 9:15)

Thanksgiving Sunday has passed and Christmas is approaching. Right now, some people are excited and happy about shopping for gifts and decorating their homes, while others are bored and sad over all the fuss. Some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high costs of living through a cold winter, while others are worried about their new car order coming in on time. Everyone is focusing on certain conditions and experiencing certain emotions. Paul exclaimed,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v. 15) His physical condition was not good and his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terrible, but his focus always remained on God. As such, he was able to give thanks to God in less than ideal conditions because he had a thankful heart for Jesus Christ. Jesus Christ came to us on Christmas. He was God's gift to the world. He lived, died, and resurrected for us. Paul grasped the significance of this miracle of love. He truly appreciated his salvation. As I look out among you now, I see most of you nodding your head in agreement, but I am really wondering how many of you actually have thankful hearts for God's indescribable gift. How many of you are really prepared to celebrate Christmas? Let's carefully examine today's Bible verse and pray for God's Word to change our selfish and prideful hearts.

Who was this thankful person that praised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This thankful person was Paul, one of the greatest missionaries of all time. He was once a relentless persecutor of the church, a Pharisaic scholar, a devout religious man, but a lost soul. His conversion on the road to Damascus changed everything! He became a Christian preacher instead of Christian persecutor. His belief in salvation by faith moved him from religion to redemption. God's miracle of grace gave him a true thanksgiving heart. He urged fellow believers to be continually thankful,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Thes. 5:16-18) Even though he was jailed, beaten, and stoned he continued to tell others about the truth. He dedicated his life to spreading the good news. Throughout all his hardships he still praised God. He wrote this wonderful statement for us through his faith. When will you stop focusing on the world and start praising the Lord God? How are you going to make this Christmas all about Jesus?

What is this indescribable gift? This gift that goes beyond any human description is eternal lif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If you have received this gift, then you should be the happiest person on the face of this earth. This priceless gift is not money, a new car, career promotion, or anything you have to work towards. Romans 6:23 say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Paul understood this, which is why he was always happy. Even through tribulations he had joy. This amazing gift was made possible by Christ's birth, death, and resurrection. Knowing this, does just the thought of Christmas get you excited? Do you have this greatest gift ever offered? No wonder Paul calls this gift indescribable! There are no words that can describe the love that brought the Savior down to earth. Can you explain such happiness? After Paul received this gift he kept giving the message of eternal life to others, but he wasn't satisfied with the human language. He did not know how to explain this gift, this indescribably beautiful, amazing, great, and wonderful gift of life everlasting.

Who is this gift giver? God is the giver!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God's great gift not only assures us of forgiveness, but heaven. This gift endured the manger and suffered the cross. This gift came to us so humble and poor, and we mistreated it terribly. When you imagine that smelly manger that Jesus Christ laid down in, do you praise Him? When you imagine the enormous pain that Jesus felt while being nailed to the cross and hanging from it, do you praise Him? When you imagine His time of death, do you praise Him? Indeed, this unspeakable gift is the result of God's great love. Those who believe in God's gift are acquitted of sin, but those who reject this indescribable gift are condemned of sin.

Is your thanksgiving for this indescribable gift more than for your success, food, family, shelter, clothing, and health? Is your happiness really based on God's great gift? As a child of God, please keep Jesus as your main focus each and every day. Let your thanksgiving, like Paul's, be continual. Let your thanksgiving rise up to God for the miracle of redemption. Since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let your thanksgiving heart tell the good news of God's great gift to all. 🙏

감사의 마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김성완 목사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집안을 꾸밀 생각에 들떠서 행복해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떠들썩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새로 주문한 차가 제 시간에 들어올지 조바심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을 갖습니다. 바울은 외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그의 건강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고 처한 환경 역시 열악했지만 그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는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기적 속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나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적이고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감사하고 있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평생 동안 가장 위대한 선교사역을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학자이자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은 한때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의 확신은 종교를 값없이 주어진 구속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의 기적을 생각할 때 그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불에 맞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달음박질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집중하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이 놀라운 선물인가?

이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만약 이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귀중한 선물은 돈이나 새 차, 직장에서의 승진 혹은 애써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23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단지 크리스마스라는 것 때문에 흥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이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바울이 이 선물에 대해 형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선물을 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말에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영생이라는 선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가?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우리에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말기유를 감내했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아주 겸손하고 초라하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녀세나는 말기유에 누워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지만 이 놀라운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공, 집, 건강, 가족, 옷, 음식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총의 선물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선물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여러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십시오. 구속의 은총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11. 19.)

지역을 넘어서 (고린도후서 10:14~18)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였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두 번째 편지에도 볼 수 있다.(고후 1장)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 그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고후 2장)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세 연약의 일꾼들이다.(고후 3장) 세 연약의 일꾼들은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처럼 형편없이 보이지만 광채가 있다.(고후 4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이다.(고후 5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고후 6장) 하나님의 성전은 매순간 회개하며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고후 7장) 또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후 8~9장) 자신의 사도직을 밝힌 10장에 이어 13장까지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였다. 원래 바울의 중심에는 신분, 학식, 전통 등 세상의 것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지탱해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고 행하던 이제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다.(고후 10:14~15) 바울이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은 이것이었다.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여 할이라”(고후 10:16)

왜 지역을 넘어 가기를 원하는가? 바울은 왜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이다.(롬 3:10,23)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극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영원한 형벌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은 없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종교인들에게도 소망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영원한 죽음과 형벌뿐이다. 이 복음을 알았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치시켰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며 죽였다. 아마도 바울이 이끄는 열심당원들도 인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가혹을 잃었던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스테반을 죽이는 선봉에 바울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은총으로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다. 복음안으로 들어온 바울은 평생 자신이 위해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복된 자의 칭찬으로 삼았을 것이다.(롬 1:14) 그만큼 바울은 더욱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였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당하였지만 바울은 더욱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다. 바울에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롬 1:15~16)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

으로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향과 같으니라”(롬 10:13~15)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을 넘어가기를 원했다.

지역을 넘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했는가? 바울이 지역을 넘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에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말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만 찾지 않았다. 예수님이 바울은 찾아가고,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셨다. 바울 자신의 열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산과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바울은 은총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였다. 그저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통로였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때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나 성령때로 사들만 데 다시 살았나니”(고전 15:3~4)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과 세상의 것들을 아주 쉽게 섞어서 정제불명의 다른 복음을 전할 때가 많다. 오히려 다른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한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헷갈려한다. 정신을 차리자. 복음은 단순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복음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바울은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지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울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가 이른 것이니라”(고후 10: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복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지역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있는 이곳이다. 자신을 살펴보고, 복음으로 넘어서 할 지역이 있지 않은가? 주변을 돌아보자. 복음이 절실한 곳으로 넘쳐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바꾼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얻은 것이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른 채 세상 그 어디에서가 방황하며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음의 광채로 인해서 우리가 할 길은 분명히 알게 된 것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지역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이다.

지금 세상은 불안한 경제와 정치, 테러와 전쟁,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혼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교회마저 복음중심에서 성공지향으로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조차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희미해지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분석, 연구만 하고 있다. 인제까지 눈치만 보며 거만해 앉아 있을 것인가? 세례 요한, 12제자들, 바울은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역을 주셨다. 이 은총의 기회 앞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이다.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지역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46

* 8주 할로새기기도(새벽 4시)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9:1~13)

마가복음 8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막으로 말씀하였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막 9:1) 이 말씀의 성취는 몇세 후에 일어났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을 연상시키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곳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다.(막 9:2) 예수님의 변형은 영연속 상의 완전한 변화이다. 앞으로 있을 부활과 오순절 성령강림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변형”은 로마서 12:2에서 사용된 “변화”와 그 의미를 함께 한다. 시간 기차는 이 변화를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 “..... 너는 네 오른쪽에 앉아 있되라 하셨도다.”(시 110:1) 이 구절은 마가복음 12:3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의 변형은 놀라웠다. 뜻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낼 수 없는 광채가 있었다.(막 9:3) 더욱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의 출현이다. 변형되신 예수님은 매우 자연스럽게 엘리야와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셨다.(막 9:4) 무슨 이유를 나누셨는지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화의 모습은 예수님이 메시야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았지만 온전히 믿지 않았다. 많은 말과야 이적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다.(막 9:31, 8:31) 여전히 자신의 신앙관, 가치관에 매여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뿐이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야와 관련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다. 제자들의 초점은 십자가가 아닌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이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변형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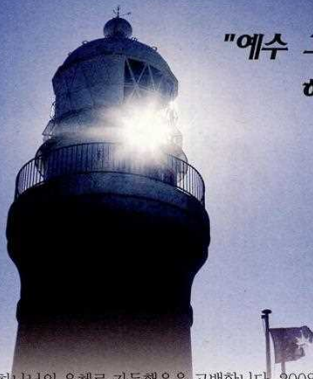
며칠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막 8:29~30)라고 고백했지만 이제 바커이 무의

식 중에 “선생님”(막 9:5)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놀라운 사건 앞에서 무서워했다.(막 9:6) 또한 산에서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막 9:9)는 의미장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막 9:10)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인간의 가치와 문화에 혼합된 이상한 십자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어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막 9:7~8)

예수님이 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구체하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마도 제자들은 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변형에 대해서 또 다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위하여 혼란스러운 말을 했기 했었기 때문이다. 다시 예수님은 기탄을 전하셨다. 바로 자신의 부활 때까지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부활사상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단 12:2~3) 더러거나 엘리야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이해가 없었다.(왕하 2:11)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까지의 예언(말 4:5~6)과 연관해서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가?”(막 9:11)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이어진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메시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은 감당하셨다.(막 1:4)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야가 왔음에도 믿지 않고 죽여려고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죽었다.(막 9:13) 결국 말씀은 일말일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었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석하였고, 세상의 가치를 섞어 만든 메시야를 대항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변형되신 현상에만 있지 않은가? 그 이전에 바라보고 믿어야 할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자.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혀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십자가의 길을 걷자.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롬 1:1)**



노광헌 (정로, 당회장)

2008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2008년 첫 날에 주셨던 말씀은 마치 올해에 붙어 닥친 정치 및 사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영적 위기를 미리 감지라도 한 듯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의 2008년 신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 교회의 방패이고 상급이신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켰으며, 그 은혜로 충만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09년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4)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땀만 아니라 열방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2009년을 소망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a servant of Christ Jesus, NIV)이라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지만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종'은 '노예'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노예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마십시오.(갈 2:20)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께 강력히 도전합니다. 타성에 빠진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요 14:6) 천령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매순간 회개,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매순간 회개합니다.(마 4:17)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총을 매순간 잊습니다. 잊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타성에도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범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순간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순간마다 숫구치는 나의 생각, 정권, 지식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마 16:24) 대신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개, 자

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처럼 쉬운 일도 없습니다.(빌 1:6) 회개의 눈물은 곧바로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부담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전파보다 다른 것들에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갈 3:1)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 자체를 자랑하려는 행사나 인간 중심의 축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골 2:8) 이것은 결국 교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복음전파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천국일꾼이 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더욱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특히 복음으로 거듭난 천령복지관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생들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하여 시작한 비즈공예(브룩지)를 비롯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이들도 복음전도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복음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만사형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계 20:15) 잠시 잠깐 누릴 세상에서의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갈보리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롬 10:4)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피로 범벅이 되신 겁니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열방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2009년에도 변함없이 천령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요 17:3)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열방에 세워질 것입니다.(마 16:18)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빌 4:6~7)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이 이루어 가는 주님의 교회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롬 8:38~39)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새롭게 출발합니다.



감사의 이유

주님의 사랑을 감사

주님의 손길을 감사

기도할 때 나는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한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얼마가 세 가지만 정해 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첫 번째로 확실한 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서 뽑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그림이나 글을 뽑아서 상장을 주셨을 때도 신이 났지만 주님께서 나를 뽑으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까가 으쓱하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신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빠가 꾸벅꾸벅 졸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나는 항상 잠들기 전에 아빠를 위해 기도한다. 아빠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셨다면 엄마와 나는 아빠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예수님이 아빠도 이미 뽑아놓으셨기 때문에 인젠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거라고 하겠다. 언니들과 나와 엄마 모두 아빠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모두 천국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하다!

김정인(유년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예수님~ 우선은 제가 올해 여름, 절대로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땅으로 친히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이 공부해 해야지 왜 선교를 가느냐?"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구원이란 큰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도 사용하여 주시고 예쁜 천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아무런 격정 없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저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 고쁨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긴 제 18년이란 인생 동안 주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믿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너무나도 많이 쓸 수가 없네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막을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람은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해요.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될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김재경(고등부)

2008년도 한 해 동안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난했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축랑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작았던 내 마음의 지경들을 십자가 가까이로 넓힐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의 가정을 지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가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었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님의 큰 꿈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끈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에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일 하심들을 기대합니다.

박민주(청년1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감사

주님께서는 올 한 해 저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 이 세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여지는 역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옛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사 1:4)고 말씀하신 그 음성!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 찬양과 예배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총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아무 공로 없는 저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고백하는 천국복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산 소망"(렘 17:3)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사 40:3),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은총의 백성으로 살아주시는 그 은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나와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발걸음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온전한 것을 이루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종규(대학부)

Thanks Jesus! You are Real to me!

예수님, 올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를 사하시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니까. 저는 예수님이 있어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저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선물로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물질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는 말씀처럼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저의 마음에서 없애 주시고, 항상 옆에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천국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드릴게요! Thanks Jesus! You are Real to me.

이지은(소년부)

충현 루디아관 및 엘림관

루디아관(집회 및 체육다목적실)



외부



내부1

내부2

엘림관(곤도식 수양관)



외부1

외부2



주방

침실



욕실

1층 로비

이동 문의

충현기도원의 친절함 안내를 받으십시오. (Tel. 031-766-5425/031-765-5472)

복지 세미나(18~22일)를 은혜 중에 마치며

이웃사랑 실천을 다짐했던 감사의 시간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복지 세미나를 통해서 충현의 성도님들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18일(화)에는 교회직원, 19일(수)에는 모든 성도들, 20일(목)에는 충현 루디아관 및 엘림관 '준공감사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22일(토)에는 젊은이들과 안수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장애 우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충현복지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하십시오.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 10:27)



엘림 중년 부인 퍼블 박사(통역/집권자 사모)

십자가의 길

세례 요한의 목표

지난 창안예배 시(2008.11.2) 때면 그랬듯이 참으로 도전적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웠다. '요한의 목표'(요 3:30)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 순교한 신약시대의 선지자이다. 그의 관생은 이미 7백 년 전에 아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을 정도이다.(사 40:3-5) 또한 그의 관생은 예수님처럼 전사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받는다.(눅 1:11-13) 심지어 예수님에 세례까지 베풀었다.

이처럼 대단한 세례 요한의 목표는 철저히 성경적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성경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성경을 잘 가르쳤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사역이라는 말이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세례 요한의 사역 목표는 성경적,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하였다. 예시아(그리스도)를 고대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였다.(요 1:29)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으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회했다.(요 3:28) 이와 같은 믿음을 그는 어떻게 고백하였다. "그는 통하여야 하였다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라"(요 3:30)

이제 2008년도 한 달여 남았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의 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 성경적이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하여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 내는 안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기미될 때 그것은 부패하여 역한 배설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2009년의 목표 우리 예수님의 목표를 성경적이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데 맞추자. 아멘.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41	서준기	3 청년2부	서경희(3)	1848	이선옥	5 청년1부	김종희(20)	1855	이성민	1 청년2부	고운희(1)
1842	조영민	6 청년2부	이현주(17)	1849	박용삼	1 청년1부		1856	박지은	3 대학부	유옥재(16)
1843	김리나	6 청년2부	이현주(17)	1850	한완진	1 청년1부		1857	김정민	17 대학부	예지희(17)
1844	김용범	6 유년부	이현주(17)	1851	이상훈	18 청년2부	최민석(15)	1858	전재덕	10 청년1부	김정환(12)
1845	이복순	9 청년3부		1852	최홍준	8 청년1부	최민석(15)	1859	김영록	25 예비대부	윤세환(25)
1846	권영환	1 청년1부		1853	주재원	13 청년1부		1860	신승철	10 청년1부	전혜영(25)
1847	한완진	1 청년1부		1854	김태영	8 청년1부	박순옥(14)	1861	김영순	7 청년3부	이영희(8)

* 충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08 총천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